

본문	행 14:19-28	제목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찬송		일시	2026. . .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 1차 선교 여행중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지금의 튀르크 남부 지역으로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5절의 말씀과 같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 났으면 아마도 고향에 가서 심신의 회복과 안정을 꾀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곳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을 돌로 찼던 사람들이 온 그 곳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되돌아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헬라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심부름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추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치켜 세웠는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호의를 무색케 하고 오히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니 수치심이 들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러한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돌로 치는 행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신이라 믿으면 신이 아닌 사람도 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이어서 신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닌 신이라고 자신들이 믿기 때문에 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믿지 못하면 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2.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은 후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가 일어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신을 돌로 찼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흔히 용기를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는 대담함이나 무모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용기가 아니라 인지적 마비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을 때, 그 공포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굳건히 발을 내딛는 힘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자신을 돌로 찼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짜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바울은 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함께, 의사 누가, 디모데와 디도, 마가 요한, 그 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26절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겨우 안디옥교회에 돌아와서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자기가 발로 걸어서, 입을 열어 부지런히 전도하고, 돌에 맞는 죽음의 위기를 용기있게 극복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보고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적용>

<기도>